

'88조리사 보수교육

-경기도 지역 총 3,843명 수강 -

김미옥

(본회 홍보담당)

산업발전과 함께 가정 밖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외식산업이 발달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이 마치 업무의 연장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식사가 되려면 맛있고 균형있는 영양음식을 알맞게 먹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까운 음식점 혹은 구내식당에서 한 끼를 때우는 것이 보편적인 생활이다 보니 먹는 자신이 영양 바伦스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의 차림표에 따라 먹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때문에 현대 직장인의 건강을 가장 크게 우려해 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단체급식소 담당자와 식품접객업소의 경영주 및 조리사라고 생각한다.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조리사들 수강을 높아

더우기 올림픽이라는 역사적 행사를 치뤄야 하는 우리는 기존 조리사들의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에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해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조리사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는 작년부터 식품접객업소와 단체급식소 조리사, 미 고용업소는 주방조리 책임자(경영주)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올해에도 보수교육은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지역은 한국조리사협회 경인지부에서 주관키로 하여 30개 시·군으로 나뉘어 행해졌다. 이에 본회는 한국조리사협회 경인지부와 협의를 거쳐 교육 프로그램에 닭고기·계란 우수성 강의 및 요리강습회를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1회(각 지역별)에 4시간으로 △식품 위생 관리 △닭고기·계란 영양 및 특성 △교육배경 및 자격 취득 △닭고기·계란 요리강습 등을 진행하였는 바 본회에서 홍보담당 직원이 직접 출강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365일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며 교육 또한 의무적인 것이어서 참석한 조리사 및 경영주들은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음이 역력히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유통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 개끔 규정되어 있다.

영양사는 메뉴를 작성하고, 조리사는 요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단체급식소(집단급식소)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많은 곳에서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 본 조리사 보수교육에도 단체급식소의 경우는 대부분이 영양사겸 조리사가 대거 참석하였다. 식품접객업소는 조리사가 참석함이 원칙이나 아직 조리사를 고용하지 못한 업소에서는 경영주(주방조리 책임자)가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 교육은 실질적인 메뉴 작성자들이었다.

닭고기·계란에 대한 조리사들 관심 대단해

참석자 중 어느 한 조리사(영양사겸임)는 “영양과 가격을 고려한 매끼마다 색다른 반찬을 준비한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하면서 “이번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닭고기와 계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닭고기와 계란으로 산뜻한 요리를 장만해야겠어요”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양계산물에 대한 영양강의는 「무조건 좋다」는 식의 일방적인 설명이 아닌 타식품과의 비교를 통해 영양, 가격, 소화율 등의 우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믿자니 석연치 않고 안믿자니 꺼림칙한 터부(금기)를 유래부터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가 가도록 했다.

인류가 이용해 온 동물성 식품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 된 것의 하나가 닭고기이다. 고조선 땅에는 닭이 매우 많았으며 약용에는 조선닭이 좋아 중국에서 많이 구하러 사람을 보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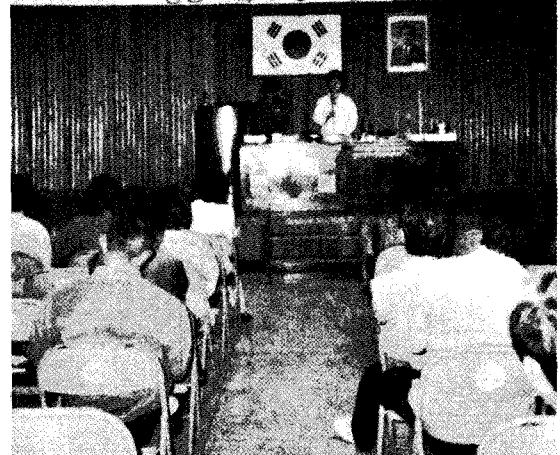
고구려때 불교가 전래되자 불교를 신봉하는 왕이 많아 동물 도살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 때도 닭고기는 제사에 사용되어 예로부터 닭고기는 귀한 식품 구실을 해 왔다.

닭껍질에는 비타민B₂가 많아 피부나 점막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특히 입주위 허는데 효과가 크다. 젊은이가 먹으면 바람이 난다는 날개는 콜라겐(Collagen)이 많아 세포를 윤택하게 하며 탄력을 주어 피부 노화를 방지(콘드로이친 황산 함유)하는 효과가 크며 맛이 좋아 윗어른들에게 드리면 젊은이에게 줄 양이 모자라서 생긴 터부이지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다.

한편 계란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완전식품」으로 다른 식품의 「단백질 품질 평가를 위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란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은 전신의 혈액을 막는 물론이고 체력증진,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있어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등의 영양 강의가 끝난 후 질문을 받는다는 말에 손을 번쩍 든 어느 중년남자는 “계란을 쌀 때 많이 구입해 두려해도 저장기간을 잘 몰라 그때그때마다 구입하곤 하는데 안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라고 해 3°C에서는 100일, 7°C에서는 65일, 16°C에서는 23일, 25°C에서는 8일간 보관할 수 있다고 답하자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참석자들 사이에서 차마 문지를 못했던 한 중년 여자는 문밖으로 필자를 쫓아 나와 닭도리탕집을 하고

킹피대비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및 조리시
88.4.3



있는 사람인데 닭꽁지 부위를 먹어도 되나요라고 조용하게 물어 왔다. 손님들 중에 일부러 골라 내는 사람도 있고 그 부위를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어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밝혔다.

닭 꽁지 부위는 대부분이 지방질이기 때문에 그 옛날 동물성지방 섭취량이 부족할 때는 대단히 인기가 있었으나 근래 들어오면서부터는 동물성지방 섭취량이 늘어나자 비만 등의 이유를 들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이론강의가 끝난 후 닭고기·계란 요리강습회가 이어졌다.

강사로는 조리사협회 경인지부 김왕희상임이사가 담당했다. 지역별로 메뉴를 조금씩 다르게 선정하였으며 스카치에그, 스터프드에그, 닭고기전골, 닭고기발골법 등을 두루 소개했다.

교육시간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라서 자칫 나쁜 오후가 될 수도 있을 법한데 실생활에 필요한 강의와 강습회라 그런지 힘찬 강사의 목소리 만큼이나 열의 있게 경청했다.

영양강의와 조리실기 강습 청강열의 높아

금번에 실시한 조리사 보수교육은 여러가지 면에서 파급효과가 컸다고 보는데 첫째, 대상층이 음식을 직접 다루고 메뉴를 작성하는 사람들이란 점이며 둘째, 간접

적 홍보가 아닌 직접적인 동적(動的)홍보이며 세째, 경기도 전지역을 빠짐없이 실시할 수 있었던 점 등이다.

다음은 본회와 조리사협회가 공동실시한 조리사 보수 교육의 일정표다. **양제**

조리사 보수교육 현황

일 시	지 역	교육장소	교육동원인원
4. 6	남양주군	군민회관	135
5. 3	구리시	시청회의실	59
4	과천시	시청회의실	23
6	성남시	시민회관	279
9, 10	수원시	시민회관	463
11	시흥군	군포읍회관	101
12	안양시	시청회의실	245
13	광명시	시청회의실	43
16	광주군	군민회관	130
17	부천시	시청회의실	330

18, 19	안산시	시청회의실	447
20	가평군	군청회의실	87
24	화성군	진주예식장	45
25	송탄시	시청회의실	112
26	평택시	시청회의실	57
27	평택군	군청회의실	66
30	김포군	단위농협회의실	83
31	강화군	군청회의실	100
6. 1	안성군	군민회관	138
2	여주시	군민회관	106
3	이천군	군민회관	132
7	용인군	군민회관	105
8	고양군	군민회관	148
6. 10	양평군	군청회의실	223
29	포천군	군청회의실	64
30	파주군	뉴파주예식장	70
7. 5	양주군	군청회의실	52

■ 5분 테스트 / 우리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기 예시된 문제들은 모두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자신의 우리말 실력을 테스트해 보고 애매했던 부분이 있다면 확실히 그 뜻을 파악해 둘 시다.

- (1) 결곡하다-(⑦ 꼭 불들어 매다 ② 깨끗하고 야무지다 ④ 마음에 맷히다 ⑤ 굳게 다짐하다)
- (2) 걸때-(⑦ 옷을 입은 맵시 ④ 옷을 거는 헛대 ⑥ 몸의 생김새 ⑤ 사람의 몸피의 크기)
- (3) 넉장거리-(⑦ 장이 서는 네거리 ④ 어수선한

상태 ②느린 행동 ④네 활개를 벌리고 자빠짐
 (4)채뜨리다-⑦재빠르게 채어 빼았다 ④채찍으로 치다 ②위로 낚아채다 ④아래로 떨어뜨리다
 (5)엇먹다-⑦서로 어긋나다 ④비꼬다 ④건방진 데가 있다 ④음식을 잘 먹다
 (6)사발농사-⑦사발에 담는 밥 ④빌어먹는 일
 ④조금 짓는 농사 ④사기그릇을 만드는 일
 (7)자반뒤집기-⑦같은 일을 되풀이 함 ④몸이 아파서 엎치락 뒤치락함 ④이랬다 저랬다 함 ④반대 주장함

〈바른 풀이〉

- (1)결곡하다-④깨끗하고 아무져서 빈 틈이없다
- (2)걸때-⑤사람의 몸피의 크기
- (3)넉장거리-④네 활개를 벌리고 뒤로 자빠짐
- (4)채뜨리다-④재빠르게 채어 빼았다
- (5)엇먹다-④사리에 맞지 않게 비꼬다
- (6)사발농사-④빌어 먹는 일
- (7)자반뒤집기-④몸이 뭉시 아파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